

손흥민, EPL 데뷔후 첫 두 경기 연속 골

팀은 사우스햄튼에 1-2 패 2위 확정 기회 날려

손흥민(24·토트넘)이 두 경기 연속 골맛을 봤다. 손흥민은 8일(한국시간) 영국 토트넘의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열린 2015~201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사우스햄튼전에서 선제골을 터뜨렸다. 선발로 그라운드를 밟은 손흥민은 전반 16분 에릭 라멜라의 패스를 받아 득점에 성공했다. 끈기가 만든 득점이었다. 손흥민은 상대 수비진이 오프 사이드 트랩을 의식해 방심한 틈을 놓치지 않았다. 2선에서 무섭게 파고든 손흥민은 골키퍼까지 제친 뒤 원발로 골망을 흔들었다. 지난 3일 첼시전에 이은 두 경기 연속골이다. 경기 연속골은 EPL 진출 후 처음이다. 손흥민의 시즌 득점은 8골로 늘어났다. 리그골은 4번째다. 손흥민은 라멜라,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중원을 형성했다. 최전방에는 득점왕을 노리는 해리 케인이 있었다. 손흥민은 선제골 후 부지런히 그라운드

를 누볐지만 공격 포인트를 추가하지 못하고 후반 20분 클린턴 은지와 교체됐다. 토트넘은 시즌 안방 최종전에서 사우스햄튼에 1-2 역전패를 당했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전반 5분 에릭센의 슈팅으로 기선을 제압한 토트넘은 손흥민의 골로 리드를 잡았다. 사우스햄튼은 전반 31분 균형을 맞췄다. 두산 타디치가 오른쪽 측면에서 내준 공을 스티븐 데이비스가 살짝 방향을 바꿔 토트넘의 골문을 열었다. 토트넘은 전반 추가 시간 케인이 골키퍼와 맞섰지만 아쉽게 득점까지 이어지지 않으면서 1-1로 전반을 마쳤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교체된 이후 점수를 빼앗겼다. 첼시전과 비슷한 패턴이었다. 동점골의 주인공인 데이비스는 후반 27분 다시 한 번 득점포를 가동했다. 타디치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은 뒤 터닝 슈팅으로 멀티골을 완성했다. 토트넘은 이날 패배로 2위 확정 기회를 날렸다. 19승13무5패(승점 70)로 3위 아스날(19승10무7패·승점 67)의 추격을 시달리게 됐다. 17승9무11패(승점 60)가 된 사우스햄튼은 리그 8위로 올라섰다. /김민근기자



손흥민은 8일(한국시간) 영국 토트넘의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 열린 2015~201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사우스햄튼전에서 선제골을 터뜨렸다.



손연재 아시아선수권 3연패 도전...중간합계 선두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2·연세대)가 아시아선수권 개인종합 3연패에 한걸음 다가갔다. 손연재는 8일(한국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린 2016 아시아리듬체조선수권 개인종합 첫째 날 경기에서 후프 18.450점, 볼 18.500점으로 중간합계 36.950점을 획득해 선두에 올랐다. 후프와 볼 종목 모두 1위를 차지해 10일 열리는 종목별 결선 진출도 확정했다. 카자흐스탄의 사비나 아시비예바가 35.950점으로 손연재의 뒤를 이었고, 우즈베키스탄의 엘리자베타 나자렌코바(35.500점)가 3위에 올랐다. 함께 출전한 이다에(32.500점)와 천송이(32.000점)는 나란히 11위, 12위에 올랐다. 손연재는 2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에서 2013년 첫 우승에 이어 지난해 개인종합 2연패를 달성했다. 원래 내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아시아체조연맹이 올해로 대회를 앞당겼다. /김민근기자

클리블랜드, PO 8연승 동부컨퍼런스 결승 진출

미국프로농구(NBA)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동부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했다. 플레이오프 8연승이다. 클리블랜드는 9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필립스 아레나에서 열린 애틀랜타 호크스와 2015~2016 NBA 동부컨퍼런스 준결승(7전4선승제) 4차전에서 케빈 러브와 르브론 제임스의 활약에 힘입어 100-99, 1점차 신승을 거뒀다. 4전 전승을 거둔 클리블랜드는 동부컨퍼런스 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플레이오프 1회전(7전4선승제)부터 8연승이다. 러브는 3점슛 8개를 포함해 27점 13리바운드로 맹활약했다. 제임스와 카일리 어빙도 나란히 21점씩 지원했다. 특히 제임스는 4쿼터 막판 승부차에서 연속 4점을 넣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애틀랜다는 대항한 싸움을 벌였지만 클리블랜드에 비해 저조했던 3점슛 성공률(29%)이 발목을 잡았다. 2~3차전에서 연속으로 3점슛 20개 이상을 쏜 클리블랜드는 4차전에서도 48.2%의 높은 성공률로 16개나 성공했다. 클리블랜드는 토론토 랩터스-미AMI 히트의 승자와 파이널 진출을 다툰다. /김민근 기자

'맨체스터 라이벌' 맨시티-맨유 4위 자리 놓고 치열한 혈투

4위까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얻을수 있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승컵을 놓고 다투던 '맨체스터 라이벌'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가 4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혈투를 벌이고 있다. EPL에서 4위와 5위는 하늘과 땅 차이다. 4위는 꿈의 무대라고 불리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5위는 한 단계 아래인 유로파리그에서 다음 시즌을 맞이해야 한다. 우승 실패로 이미 체면을 잔뜩 구긴 두 팀이지만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맨시티는 9일(한국시간) 아스날과의 홈 경기에서 2-2로 비겼다. 세르히오 아게로와 케빈 데 브루인의 득점포로 아스날의 추격을 뿌리치는 듯 했지만 두 번이나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승수 싸움에 실패했다. 최종전을 앞두고 승점 65(19승8무9패)가 된 맨시티는 5위 맨유(19승8무10패·승점



맨시티는 9일(한국시간) 아스날과의 홈 경기에서 2-2로 비겼다. 65)에 2점 앞선 4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맨시티가 맨유보다 한 경기를 더 치렀다는 점이다. 맨유가 11일 웨스트 햄 유나이티드전을 이긴다면 두 팀의 순위는 뒤바뀐다. 맨시티는 펠 파르디올라 감독과 일찌감치 차기 시즌 계약을 체결하며 도약을 꿈꾸고 있다. 맨시티가 세계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파르디올라 감독을 데려온 이유는 간단하다. /김민근기자

다. 프리미어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다. 이 중에서도 유럽 최고의 클럽을 가리는 챔피언스리그 정상 도전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조차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자력으로도 결정할 수 없다는 현실이 이들을 더욱 애타케 만든다. 만일 맨유가 남은 두 경기에서 모두 승리할 경우 맨시티는 유로파리그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맨시티는 물론 파르디올라 감독 임명에서도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맨유는 맨시티의 최근 부진을 틈타 호시탐탐 4위 자리를 엿보고 있다. 맨유의 4위는 경질설이 돌고 있는 루이스 반 할 감독의 입지와 연관이 있다. 이미 결승에 오른 FA컵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티켓 확보까지 이어질 경우 반 할 감독은 남은 임기를 보장 받을 수도 있다. 맨체스터 라이벌들에게 가려져 있지만 3위 아스날(19승11무7패·승점 68)도 맘 놓고 있을 처지는 아니다. 맨시티와 맨유가 남은 경기를 모두 이기고 아스날이 패한다면 5위는 아스날의 몫이 된다. /김민근기자

6월 12일 새만금인라인마라톤대회

작년 처음 시작한 대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대회운영으로 호평을 받았던 '새만금인라인마라톤대회'가 오는 6월 12일 군산 비룡항에서 개최된다. 군산 비룡항을 출발하여 신시도를 지나 가력도 입구를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 될 이번대회는 시원한 비드바람과 넓은 길을 가르는 코스로 전국의 인라인동호인들의 많은 참가가 기대되고 있다. 참가접수 기간은 4월 18일부터 5월 24일까지이며, 대회 홈페이지 www.jinh.com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한편, 대회당일 오전8시부터 12시까지 대회로 인해 비움한부터 가력도 입구까지 교통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감동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성로 1482 / 063) 320-0114